



## 한국인쇄학회, 30주년 기념식 및 초청강연회

# 차기 회장 오성상 신구대 교수 선임

인쇄업계 유일한 학회인 한국인쇄학회(회장 구철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11월 2일 동국대학교 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김남수 대한인쇄문화협회장을 비롯해 김진배 대한인쇄기술협회장, 김도필 국군인쇄창장, 남석순 한국출판학회장, 이의수 동국대RIS사업단장 등 단체장과 인쇄학회 회원들이 참가해 인쇄학회 30주년을 축하했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 구철회 회장

#### “부경대 재직기간과 같아 감회 깊은 인쇄학회 30주년”

구철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인쇄학회는 1982년 7월 17일 부경대학교의 전신인 부산공업대학교 인쇄과 고 김성순 교수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개인적으로는 부경대학교에 1982년 4월 부임했는데, 부경대 재직기간과 한국인쇄학회의 역사가 같아 더욱 감회가 깊다”며 “30년 동안 학회 발전을 위해 열성과 노력을 다한 전임 회장들과 학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저는 올해 12월 31일자로 임기가 끝나고 신구대학 오성상 부회장이 내년 1월 1일부터 학회를 이끌어가게 되는데, 차기 회장에게도 애정을 가지고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 김남수 회장

#### “산학협력 활성화지원 사업 등으로 협력 모색할 것”

김남수 대한인쇄문화협회장은 축사에서 “우리나라 인쇄문화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어 온 한국인쇄학회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한국인쇄학회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인쇄업계의 트렌드를 정확히 분석하고 인쇄업계가 지향

해야 할 방향에 대한 학문적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발전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지난 7월, 5년간 총 792억 원이 지원되는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을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발표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특히 5개년 계획에서 발표된 산학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검토해 한국인쇄학회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다. 학회도 5개년 진흥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또 “우리 인쇄업계와 단체가 올바른 길로 가거나 불협화음이 있을 때 바른 길로 가고, 화합할 수 있도록 큰 목소리를 내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필 국군인쇄창장과 남석순 한국출판학회 회장도 축사를 통해 “인쇄학회 30주년을 축하하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인쇄학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이병완 한국인쇄학회 부회장, 김성빈 부경대 교수, 신종순 중부대 교수, 이의수 동국대RIS사업단장, 오규남 전 인쇄학회 회장, 조가람 박사 등 유공자에 대한 공로패가 수여됐다.

## 외부 초청강연 진행

이번 추계학술논문발표회에서 부경대학교 이연석씨가 Reverse Offset에서 잉크전이 유동에 관한 시뮬레이션 연구에 대해, 부경대학교 이상윤씨가 그라비아 오프셋 인쇄에 의한 미세전극용 Ag Paste 개발에 대해, 부경대학교 최인식씨가 국내 하프톤 스크린 인쇄를 위한 최적의 스크린 망사 선택 방법에 관한 연구에 대해, 부경대학교 김준곤씨가 친환경과 표준인쇄를 고려한 인쇄 최적화에 관한 연구 등을 발표했다.

초청강연회에서는 유창준 대한인쇄문화협회 전무이사가 한국인쇄산업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해, X-Rite일본의 오카마쯔 에이지씨가 일본 CMS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고모리코퍼레이션 나카무라 유이치 매니저가 일본의 인쇄시장 동향과 세계 각국에서 성공을 거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유창준 대한인쇄문화협회 전무는 한국 인쇄산업 현황과 발전방안에서 “전국 인쇄 사업체수는 1만6280개사인데, 이중 10인 이하 사업체가 1만4938개사로 전체 9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들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약 60%가 밀집되어 있어 인쇄가 도심형 산업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최근 인쇄사업체 수는 4년 동안 감소하고 있는데 오히려 10인 이상 사업체는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프리프레스 업종의 구조조정 및 소규모 업체가 상대적으로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최근 3년간 평균 3억달러 내외의 수출을 한 인쇄물은 간접 수출물량을 포함하면 1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2009년과 2010년에는 한류 등의 영향으로 수출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2011년에는 태국의 홍수 등으로 수출물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기념사를 하는 구철회  
인쇄학회 회장



차기회장으로 선임된  
오성상 교수



축사를 하는 김남수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축사를 하는  
김도필 국군인쇄청장



축사를 하는 남석순  
한국출판학회 회장



초청 강연회에서 발표한  
유창준 인협 전무이사



초청 강연회에서 발표한 X-Rite  
일본의 오카마쯔 에이지



강연회에서 발표한 고모리코퍼  
레이션 나카무라 유이치 매니저

X-Rite일본 오카마쯔 에이지씨는 일본 CMS의 현황과 전망에서 “바이어들의 요구에 따라 인쇄사들은 수치관리를 해야하는 시점에 와 있다. 이에 수치관리를 위해 1997년부터 재팬컬러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현재 재팬컬러에서는 2009년부터 재팬컬러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인쇄인증과 프루프인증 등 2가지가 있다. 인쇄인증에는 표준인쇄인증과 매칭인증으로, 프루프인증에는 프루프기기인증과 프루프운용인증으로 나뉜다. 인쇄인증 중 표준인쇄인증은 인쇄사가 받는 것으로, 인쇄기계의 수치관리와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된 재팬컬러를 반영하는 인쇄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공정관리를 인증받는 것이다. 현재 일본의 100여개 사가 인증을 받았다. 매칭인증은 표준인쇄인증을 받은 업체가 신청하는 것으로 색영역 전체를 인증받는 것이어서 난이도가 높다. 프루프인증 중 프루프기기인증은 프루프 장비를 판매하는 업체가 받는 것으로 프루프 기계의 유지관리가 잘 되어 있어 인쇄물을 안정되게 출력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인증이다. 프루프운용인증은 프리프레스업체와 디자이너가 받는 인증으로 프루프장비를 안정되게 쓰는지 평가하는 인증이다”고 말했다.

나카무라 유이치 매니저는 일본의 인쇄시장 동향과 세계 각국에서 성공을 거둔 비즈니스 모델에서 “고감도 UV는 고감도 잉크를 신개발 램프로 경화시키는 방식으로 종래 UV장치가 필요했던 연장 딜리버리, 램프4등, 덕트설비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어 초기 도입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램프 교환비용이 저렴해 유지관리비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소비전력도 기존 UV장치의 1/3에 불과하며, 발열이 적고 오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일본에서는 지난 4년 동안 170대 이상의 고감도 UV시스템이 도입됐다. 일본을 비롯해 한국 역시 성숙된 시장으로 인쇄시장은 감소하고 있다. 단, 성숙된 시장에서도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은데 이들은 전문분야에서 특화된 기술을 갖고 있는 인쇄사다. 앞으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수주가격을 올리거나 원가를 내리는 방법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청강연회 후에는 앰버서더호텔 19층에서 창립 30주년 기념만찬회가 개최됐다.☞